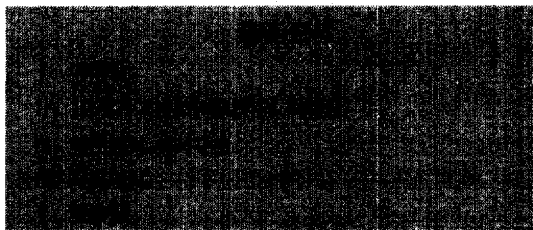


조국에 대한 사모곡 - 「콜레라 시대의 사랑」

최병일(경희대학교)



1. 머리말

마르케스의 소설에 대한 연구, 비평문은 그간 상당량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발표된 「콜레라 시대의 사랑」¹⁾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 또한 본 텍스트를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랑이야기’,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준다는 메타포를 담고 있는 과장된 이야기’, ‘사실적인 문체로 쓰인 가장 매력적인 사랑이야기’, ‘사랑이란 주제를 신선한 문체로 구성한 완벽한 작품’이라는 등 한결같이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애로 소설쯤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텍스트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는 본 텍스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1982년도 이후에 출판된 첫 번째 소설로서 독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과,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백년간의 사랑」과 비교하여 작품성이 결여되었다는 판

1) Gabriel García Márquez, 1985.

단에서 기인된 듯하다.

그러나 본 텍스트가 과연 이성간의 애절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 멜로소설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물론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본 텍스트를 남녀 상열지사(相悅之事)를 다룬 멜로소설로 파악하는 시각들은 수많은 의미군이 장치된 심층서사구조를 간과하고, 주인공들의 삼각관계를 주요 갈등구조로 엮고 있는 표층서사구조의 분석에만 치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본 텍스트의 심층서사구조를 분석, 체계화하여 그곳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고찰하고, 문학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재창조란 명제에 시종여일 집념을 보이고 있는 마르케스의 작가의식이 본 텍스트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마르케스는 붐(Boom)계열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사실을 우화적, 신화적, 종교적 세계에 담아 새로운 라틴아메리카를 재창조하려 시도해 왔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리얼리티를 통시적, 공시적 구조 속에서 파악 비판하고, 이를 역사적 현실과 민중의식 속에 투영시켜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에 충실한 바람직한 역사를 재창조하려 했다. 또한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재창조란 주제의 확장파와 심화를 위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주제를 일련의 작품²⁾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 왔다. 본 텍스트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품군에 속하는 소설이라 하겠다. 그러나 소설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재창조란 주제는 동일하나 그 실천 방법론에선 크게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텍스트 이전의 일련의 작품 속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리얼리티를 폭력, 불의, 부패, 기아, 비인권화, 혼돈화 등 모든 사회적 역기능이 구조화된 구제불능 상태로 진단하고, 現 세계의 철저한 파괴와 완전한 소멸을 통한 새로운 신세계의

2) 「낙엽 La hojarasca」,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El coronel no tiene quien le escriba」, 「불운의 시간 La mala hora」, 「죽장의 가을 El otoño del patriarca」, 「백년간의 고독 Cien años de soledad」,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Crónica de una muerte anunciada」, 「장군의 미로 El general en su laberinto」 등.

도래를 촉진시킴으로써 구원을 시도하고 있는데³⁾ 비해, 본 텍스트에서는 서구 모더니티의 입식으로 인한 리얼리티의 양극화 현상을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라틴아메리카와 피지배계급(민중)의 화합,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회복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세기 말엽에 콜롬비아의 해안도시 카르타헤나에서 만연되었던 콜레라로 인해 피폐되고 비뚤어진 도시의 군상 속에서 유럽식 모더니티의 가치관과 라틴아메리카의 전통문화가 상충, 혼돈되는 과정을 몇 개의 사랑의 유형과 접목시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텍스트에 나타난 시대상 및 작가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사랑'의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텍스트에 용해되어 있는 '사랑'의 의미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 2장에서는 세기말 콜롬비아의 시대상을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기와 연관시켜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중심문화권과 주변문화권의 양극화된 리얼리티를 정리하고, 인물을 통해 상징화되고 있는 근대화 의 허구성 및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고찰하며, 나아가 유형별 사랑 속에 담긴 의미를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現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마르케스의 작가의식과 본 텍스트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그의 작품의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시대상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리얼리티는 현 라틴아메리카 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독립기의 제 여건 및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독립 후 라틴아메리카는 극심한 혼돈상태에 놓이게 된다. 독립전쟁으로

3) 최병일, 1991.

인한 민생의 피해,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제반 질서의 붕괴에 따른 체제 및 가치관의 혼란, 이에 더해 권력과 부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쿠데타⁴⁾ 그리고 그에 따른 끊임없는 독재체제의 생멸 등 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혼돈은 지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독립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크리오요(criollo)⁵⁾집단이 통일론자(unionista), 분리론자(separatista), 자치론자(autonomista) 등으로 갈라져 내분에 휩싸이며 식민지 지배자들의 퇴장으로空洞化된 정치세력의 대체 세력으로 자리잡지를 못한 데에 그 주 요인이 있다 하겠다. 그래서 호시탐탐 중앙 무대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던 정치 군인들과 지방의 호족들인 까우디요(caudillo)⁶⁾들이 정권찬탈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폭력, 독재, 혼란, 부정, 부패 등으로 규정되는 소위 까우디요의 시대가 개막된다.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고, 정부는 적자에 그리고 민중은 기아에 허덕인다. 이에 정권의 위기를 느낀 허약한 정부는 자신들의 비호세력을 외부에서 찾게 된다. 제국주의와의 결탁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국주의의 비호 속에 안주하게 된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으로, 사병화된 강력한 공권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민중을 착취,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민중과는 더욱 더 유리되어 가는 독재집단으로 고착되어 간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시너로 전략하여 국가의 모든 이권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할양하게 되지만, 자신들은 국가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층(oligarquia)을 형성하면서 민중을 극심한 기아 속에 빠뜨린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협 당하는 민중들의 소요는 먼저

4) 한 예로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 공화국이 수립된 1830년부터 세기말까지 70여년 동안 무려 50여회의 내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한 혼란상은 1899년에 시작된 소위 천일전쟁으로 불리는 내전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5) 크리오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계 백인으로 스페인인들이 누리던 지배계층 밑에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였는데 대부분 하급관리, 군인, 종교인, 학자 등이었다. 이들은 독립전쟁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6) 대부분 지방의 대지주들로 재력을 이용하여 사병을 조직하고, 크리오요들이 정치 무대에서 거의 사라지는 1830년경부터 정권을 잡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다.

나가고, 소수인 지배세력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자, 성직자, 의사 등 소위 엘리트계층은 지배계층을 옹호하는 전위부대로 활동하며 특권을 누리면서 차츰 민중과 멀어져 갔고, 민중의 착취는 제도화되었으며, 정의나 인권은 사장되어 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개발이라는 미명과 함께 밀려드는 서구의 외래문화에 의해,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관습, 가치관 등의 전통문화는 변질 또는 말살되어 갔다. 민중과 유리된 특권층이 서구의 문화와 서구적인 삶을 최상의 가치로 맹신하며 유럽식 모더니티의 입식에 압장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틀을 형성함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또한 봄계열 작가들 특히 마르케스 소설의 주요 소재로 그리고 동시에 주제 의식으로 응집되고 있다.⁷⁾

Ⅲ. 텍스트의 서사구조

1. 텍스트에 나타난 리얼리티의 양극화

마르케스의 작가의식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리얼리티로부터 발아되어 역사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現 라틴아메리카 리얼리티의 부정적 요소들을 역사 속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根源을 제시하고 있다.

본 텍스트의 배경은 3세기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근대화 열풍이 고조됐던 19세기 말엽 콜롬비아의 해안도시 카르타헤나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콜롬비아,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전형이며 또한 마르케스가 창조한 상상의 도시 마콘도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카르타헤나 만(灣)을 경계로 피지배계층(하

7) 최병일, 1997.

층민, 민중)이 거주하는 구도시 지역과 특권 엘리트계층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확연하게 양분되어 있는 이 도시는 화자에 의해 서술되는 전사(前事)와 작품내 현실세계의 리얼리티에 따르면 콜레라 등 각종 전염성 질병이 이미 오래전에 휩쓸었고, 식민지시대에 형성되고 이젠 하층민들만이 살아가고 있는 구도시 지역에선 아직까지도 각종 오염과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르케스의 비판적 작가의식의 시발점인 이곳 구도시에서의 민중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지경이라 할 수 있다.

마부는 그 주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물어보며 맴돌아야 했다. 우르비노 박사는 늪지에서 풍기는 죽음의 분위기를, 불길한 정적을 그리고 역사체의 부패하는 내음을 피부로 느꼈다. … 중략 … (파리에서 유학생활하던 시절에) 향수에 젖어 그리도 이상화되었던 그 부패하는 내음은 이젠 참을 수 없는 현실로 바뀌었다. … 중략 … 마차는 울퉁불퉁한 흙탕길을 달리며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선 바닷물에 휩쓸려온 시체들을 독수리들이 서로 다투며 쪼아대고 있었다. … 중략 … (과거에) 총독이 머물던 도시와는 다르게, 그곳의 집들은 판자집으로 빛이 바래 있었고, 지붕은 양철이었다. 그리고 스페인인들의 유산인 노천 하수구의 오물이 범람하여 집안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집들이 말뚝 위에 세워져 있었다. 모두가 비참한 전경이었고 또한 방치되어 있었다. … 중략 … 문패도 없는 그 집의 외양은 창문에 비치는 레이스 달린 커튼을 제외하곤 그보다도 더욱 형편없는 주위의 집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⁸⁾

8) Gabriel García Márquez, 1985, 22-23쪽.

El cochero tuvo que dar muchas vueltas y preguntar varias veces para encontrar la dirección. El doctor Urbino reconoció de cerca la pesadumbre de las ciénagas, su silencio fatídico, sus ventosidades de ahogado. … 중략 … aquella pestilencia tantas veces idealizada por la nostalgia se convirtió en una realidad insoportable. … 중략 … el coche empezó a dar saltos por el lodazal de las calles donde los gallinazos se disputaban los desperdicios del matadero arrastrados por el mar de leva. … 중략 … A diferencia de la ciudad virreinal, allí (la casas) estaban hechas de maderas descoloridas y techos de cinc, y la mayoría se asentaban sobre pilotes para que no se metieran las crecientes de los albañales abiertos heredados de los españoles. Todo tenía un aspecto miserable y desamparado. … 중략 … El exterior de la casa sin número no tenía nada que la distinguiera de las menos felices, salvo la ventana con cortinas de encajes.

식민지시대에 노예들(서민들, 민중)이 살았던 지역인 이 구도시는 주소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열키고 설킨 미로처럼 구획이 명확하지 않고, 길거리는 파도에 휩쓸려온 각종 시체와 쓰레기가 널려있으며 노천으로 흐르는 하수구에선 오물이 범람하고 있다. 마치 이 도시와 인접해 있는, 썩어가는 시체들이 우글거리는 늪지를 연상시킬 만큼 열악하다. 아니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죽음의 늪지'인 셈이다.

이에 반해, 만(灣)을 끼고 맞은 편에 위치한 신도시인 만가(Manga)지역은 구도시와는 아예 시·공을 달리하고 있는 듯하다. 그 전형을 우르비노 박사의 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배날 우르비노 박사의 집은) 거대하고 쾌적했다. 단층집으로 현관은 테라스를 지지하는 도리드식 기둥으로 되어 있었다. 현관에서 주방 입구까지의 바닥은 흰색과 검은색 포석들이 (서양)장기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 중략 ... 길거리와 면한 커다란 창문이 여섯 개나 되는 널다란 거실은 천장 또한, 집 전체가 그렇듯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식당과의 사이엔 유리로 된 거대한 장식문이 가로놓여 있었다. ... 중략 ... 웅장한 가구는 살아있는 듯한 경비병 형상의 쾌종시계까지도 모두 다 19세기 말엽 영국에서 만들어진 진품들이었다. ... 중략 ... 바닥엔 파리세계박람회에서 구입한 터키산 양탄자가 깔려있었다.⁹⁾

우르비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파리에 유학해서 의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엘리트계층의 전형이다. 그의 집은 독립 이후에 부자들의 거주지로 조성된 신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명실공히 저택이라 볼릴 만큼 넓고 쾌적하다. 집안은 가히 유럽(프랑스)의 귀족 엘리

9) 앞의 책, 30-31쪽.

(la casa del doctor Juvenal Urbino) era grande y fresca, de una sola planta, y con un pórtico de columnas dóricas en la terraza exterior ... 중략 ... El piso estaba cubierto de baldosas ajedrezadas, blancas y negras, desde la puerta de entrada hasta la cocina ... 중략 ... La sala era amplia, de cielos muy altos como toda la casa, con seis ventanas de cuerpo entero sobre la calle, y estaba separada del comedor por una puerta vidriera, enorme e historiada, ... 중략 ... Los muebles de recibo, hasta el reloj de péndulo de la sala que tenía la presencia de un centinela vivo, eran todos originales ingleses de fines del siglo xix. ... 중략 ... Las baldosas habían sido cubiertas con las alfombras turcas compradas en la Exposición Universal de París.

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비견될 만큼 유럽에서 구입한 수많은 최고급 가구들로 호화롭게 치장되어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그의 문화생활 역시 파리의 엘리트들의 취향을 능가할 만큼 고급화되어 있다.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최고급 축음기에 클래식 디스크, 파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행곡 디스크들을 구비해 놓았고, 문학서적을 중심으로 한 신간서적들은 파리나 바로 셀로나에 있는 단골 서점 주인들이 보내주고 있다. 비록 몸은 콜롬비아에 있으나 그의 삶은 유학이나 여행 기간에 파리에서 누렸던 유럽식 삶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 '죽음의 늪지'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는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별천지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카르타헤나엔 민중들의 삶의 터전인 '죽음의 늪지'(구도시, 피지배문화권, 주변문화권)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 지배계층의 세계인 '별천지'(신도시, 지배문화권, 중심문화권)가 만(灣)을 경계로 서로가 다른 세상을 영위하며 공존하고 있다.

2. 인물의 형상화를 통한 근대화의 허구성 및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탐색

마르케스는 또한 두 명의 남자주인공의 성격 규정을 통해서 라틴아메리카 근대화의 진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우르비노 박사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병적이라 할 만큼 지극하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 만연되어 있던 계몽주의사상에 심취된 그는 낙후된 카르타헤나(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직 근대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헌신적으로 매달린다. 그는 파리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카르타헤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의학협회를 설립하고, 도시의 관개수로와 하수구 시설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시장 건축물을 건설하여 만(灣)을 오염시키는 노천시장을 정비했다. 언어학회와 역사학회를 설립했고, 최신식 오페라 극장과

예술학교도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카르타헤나의 의학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가없이 헌신한다.

그러나 그가 것처럼 헌신하고 사랑하는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카르타헤나의 그 무엇이 그 범주에 속해 있는가? 그것은 유럽을 모방해서 만든 '신도시', 부유한 엘리트 지배층이 형성하고 있는 상류사회가 아닐까? 또한 그의 헌신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이기적 발상의 결과물이 아닐까? 마르케스는 이러한 의문을 우르비노란 인물의 성격 규정을 통해서 독자들의 사유를 유도하고 있다.

실상, 우르비노가 사랑하고 또한 새로운 학문, 문화, 체제 등의 도입 및 이식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한 카르타헤나에서 민중과 민중의 삶의 터전은 그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료하는 환자는 부자들로 국한되어 있고, 서민들의 거주지역인 구도시에는 아예 발거름조차 해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가 생각하는 카르타헤나(라틴아메리카)엔 민중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관여하는 학회를 포함한 온갖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수장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또한 많은 부를 축적하고 호화로운 삶을 영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병적인 사랑이며 그가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조국 역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모든 기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주체인 민중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정성스레 기르고, 가르치는 앵무새와 그 앵무새를 좇다가 맞이하는 그의 허무한 죽음이 이러한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에게 불러와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 앵무새는 수년전부터 그 지방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¹⁰⁾

10) 앞의 책, 18쪽.

y le daba lecciones de francés y de canto al loro doméstico que desde hacía años era una atracción local.

그의 옆에 있는 듯 앵무새의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그래서 우르비노는 망고나무의 가장 낮은 가지 위에 앉아있는 앵무새를 금새 찾을 수 있었다.

—첼면피아— 그가 앵무새에게 소리쳤다.

앵무새가 그와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더 지독한 첼면피아, 의사 선생.

앵무새를 눈에서 떼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략… 앵무새가 놀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중략… 우르비노 박사는 앵무새의 목을 움켜쥐었다. …중략… 그러나 곧 바로 앵무새를 놓쳤다. (앵무새를 잡으려고) 올라선 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 그의 몸이 한 순간 허공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성체도 받지 못한 채 회개할 시간도 작별할 시간도 없이 성령감람절인 일요일 오후 4시 7분에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¹¹⁾

우르비노는 앵무새를 가꾸어 주고(털을 깎아주고 단장을 시키고) 앵무새에게 불어와 노래를 가르치는 데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또한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언뜻 부유층의 고상한 취미쯤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으나 본 텍스트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좀더 심대하다. 깃이 잘리고 사육되면서 새의 본래 속성을 상실한 앵무새, 더욱이 주인이 원하는 노래와 언어(불어)를 배워 꼭두각시 인간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앵무새, 이는 곧 우르비노 자신의 모습이다. 라틴아메리카인으로서의 본성을 상실한 채 유럽 특히 파리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우르비노, 집안의 보도(步道)와 바닥을 유럽 상류사회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인 서양장기의 장기판 모양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의

11) 앞의 책, 62-63쪽.

Lo oyó muy cerca, casi a su lado, y enseguida lo vio en la rama más baja del mango.

—Sinvergüenza— le gritó.

El loro replicó con una voz idéntica:

—Más sinvergüenza será tú, doctor.

Seguía hablando con él sin perderlo de vista, …중략… con mucho cuidado para no espantarlo. …중략… El doctor Urbino agarró el loro por el cuello …중략… Pero lo soltó de inmediato, porque la escalera resbaló bajo sus pies y él se quedó un instante suspendido en el aire, y entonces alcanzó a darse cuenta de que se había muerto sin comunión, sin tiempo para arrepentirse de nada ni despedirse de nadie, a las cuatro y siete minutos de la tarde del domingo de Pentecostés.

집은 유럽풍에 유럽의 가구, 집기로 온통 치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즐기는 문화는 모두 유럽문화 일색이다. “(파리의 신흥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현실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피가로의 구독을 그리고 시(詩)와 유리되지 않으려고 뒤 몽드 잡지의 구독을 신청”¹²⁾했을 정도로 그가 살아가는 현실은 유럽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은 이미 유럽인으로 변질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헌신하는 카르타헤나의 근대화는 유럽인의 시각과 사고에 의한,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문화, 전통 등 라틴아메리카의 본질을 도외시한, 유럽의 근대화를 모방, 입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의 본성과 본질을 상실한 앵무새를 쫓다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우르비노의 삶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이나 본질과는 무관한 대상을 쫓은 허식적인 삶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조국에 대한 애국과 헌신인 양 왜곡시켜 영달을 누리려는 그는 앵무새(즉 그 자신)의 말처럼 ‘철면피’인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우르비노가 조국의 근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평생동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선으로 가득찬 철면피로, 그의 삶을 환상을 추구한 허식의 삶, 겉질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주인공인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우르비노와 철저히 대비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카르타헤나 만(灣)을 끼고 부자들의 거주지역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구도시(빈민가 지역)에서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만큼 어렵게 살아간다. 태생 또한 서자 출신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낳아준 아버지는 있으나 그로부터 자식으로의 인정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독서는 우르비노의 유럽지향적 독서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종류, 모든 장르의 책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장소 또한 대부분이 사창가의 싸구려 호텔방이다. 그의 여성편력 역시, 1명의 부

12) 앞의 책, 221쪽.

Trajo una suscripción de Le Figaro, para no perder el hilo de la realidad, y otra de la Revue des Deux Mondes para no perder el hilo de la poesía.

인과 평생을 함께 한 우르비노와는 달리, 620여 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을 만큼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처럼 출생, 가문, 학업, 삶의 환경, 취향 등 아리사의 삶의 여정은 이분법적 분류가 가능할만큼 우르비노의 그것과 대비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인격과, 현실 및 삶에 대한 인식 또한 우르비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리사는 편지의 대필을 부탁하러 오는) 새로운 손님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꿈이 어려있는 눈동자의 여백인) 흰 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원하는 바를 대신 써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

아리사는 다양한 독서와 풍부한 여성편력 그리고 민중 속에서의 일상을 통해서 삶과 사랑에 대한 사유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켰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삶의 애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온 몸으로 감각적,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분별한 독서와 여성편력, 민중의 삶의 터전인 구도시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통해 작가는 아리사에게 라틴아메리카의 리얼리티와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그를 민중의 현실과 그들의 염원을 꿰뚫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승화시키고 있다. 즉 그는 라틴아메리카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사랑의 의미

위에서 보았듯이 성격이 판이하게 설정된 우르비노와 아리사는 여주인공인 페르미나 다사를 중심으로 사랑의 삼각관계 구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작가는 이 구도 속에 자신의 조국 콜롬비아, 나아가 라틴

13) 앞의 책, 235쪽.

Ni siquiera les hacía preguntas a los clientes nuevos, pues le bastaba con verles el blanco del ojo para hacerse cargo de su estado, ...

아메리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염원을 갈무리해 놓고 있다.

여주인공 다사는 곧 조국(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형상이다. 태초에 형성된 라틴아메리카의 공간과 그 공간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명멸하며 이어져 온 그 모든 것, 특히 라틴아메리카인들과 그들이 만들어 온 신화와 역사, 문화와 삶의 애환 등을 아우르는 상징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identidad) 그 자체가 여주인공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남주인공들과 그녀와의 사랑이야기는 곧 라틴아메리카의 지배계층(특권층) 및 피지배계층(서민, 민중)과 라틴아메리카의 연관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하겠다.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다사의 사랑은, 비록 그녀를 향한 아리사의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열병처럼 환상처럼 그녀를 휩싸고 그녀 또한 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만, 결국 그녀와 우르비노의 결혼으로 끝을 맺는다.

오늘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의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¹⁴⁾

우르비노의 사회적 여건 및 지위 즉 의사 가문의 자제, 꿈에라도 가고픈 선진국 프랑스에서 유학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 선진 의술을 익힌 저명한 의사, 카르타헤나의 공공정책을 기획하고 선도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 여기에 더해 유럽에서도 최고급품인 가구들로 그 넓은 집안을 온통 장식할만큼의 엄청난 부(富), 더 나아가 유럽에서 출판, 판매되는 문학서적, 음악디스크 등을 즐겨 읽고 듣는 고상한 취미 등 우르비노가 가지고 있는 '신랑의 조건'은 한마디로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리사가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은 비참할 정도로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을 바람처럼, 콜레라의 열병처럼 젊은 시절 한 때 스쳐가는 환상적인 사랑 하나로 반전시키는 일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사와의 꿈결같은 사

14) 앞의 책, 144쪽.

Hoy, al verlo, me di cuenta que lo nuestro no es más que una ilusión.

람을 한 때의 환상으로 치부하고, 풍족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르비노를 자신의 반려자로 선택한 다사의 결정은 어찌보면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다사가 우르비노를 선택한 소설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라틴아메리카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유럽인의 삶을 모방하려 한 엘리트 지배계층과 라틴아메리카의 결합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도외시한 채 유럽의 근대화(modernidad)를 받아들인 라틴아메리카의 선택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이는 라틴아메리카가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포기하고 유럽의 물질문명과 손잡았음을 지칭하며, 나아가 민중을 버리고 특권층과 결합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년기에 이루어지는 다사의 사랑(결혼생활)은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빈곤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환상(꿈)의 세계를 외면하고 현실세계를 취한 그녀의 삶의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아리사의 숙명적이고 본능적인 진실한 사랑을 거부하고 우르비노의 사회적, 물질적 지위와 풍요를 선택한 귀결점이 곧 그녀의 결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결혼생활에서 정신적 삶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日常)만이 존재한다. 그 또한 남편의 사회적 활동에 중점을 둔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제공해 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행복 제국'의 절대자였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오로지 남편 자신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국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로지 그 자신, 다시 말해 (카르타헤나 사회를 위한) 그의 성자같은 봉사를 위한 것임도 알고 있었다.¹⁵⁾

15) 앞의 책, 303쪽.

Siempre (ella) se sintió viviendo una vida prestada por el esposo: soberana absoluta de un vasto imperio de felicidad edificado por él y sólo para él. Sabía que él la amaba más allá de todo, más que a nadie en el mundo, pero sólo para él: a su santo servicio.

다사의 개인적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삶에 종속된 노예적인 삶만을 이어갈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종속된 삶(남편의 삶) 또한 출세를 위한 남편의 사회적 활동임을 화자는,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성자의 봉사'에 비유하여 조소하고 있다. 즉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사의 이러한 중년기의 삶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는 물론 유럽식 물질문명의 소용돌이에 매몰되고 폐허화된 라틴아메리카의 정신문화, 즉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 유럽식 삶을 라틴아메리카에 모방, 이식하려한 엘리트 지배계층과 손잡은 라틴아메리카의 리얼리티를 형상화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다사의 노년기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소설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본 소설의 모든 서사 장치는 이를 향해 그리고 이를 위해 설치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페르미나”, 아리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난 이런 기회를 반 세기 이상 기다려 왔소. 당신에게 영원히 충실하고 그리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나의 맹세를 다시 한 번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오”.¹⁶⁾

젊은 시절 한 순간에 숙명적으로 사랑해버린 여인 페르미나, 그러나 ‘결혼의 조건’이란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반 세기 이상의 삶을 서로 달리하며 이제 고회를 넘겨버린 그녀와 아리사. 이러한 이들의 사랑이 재개되는 시점은, 다시 말해 아리사의 사랑의 고백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다사가 남편의 죽음으로 상중(喪中)에 있을 때이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적이기에 상식이나 현실의 관념을 뛰어넘고 있다.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그녀의 냉담함에 비감이 어렸다. 그들의 관계는 또 다시 원점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¹⁷⁾

16) 앞의 책, 74쪽.

—Fermina— le dijo—: he esperado esta ocasión durante más de medio siglo, para repetirle una vez más el juramento de mi fidelidad eterna y mi amor para siempre.

17) 앞의 책, 428쪽.

Florentino Ariza quedó desconsolado por su indiferencia: estaban otra vez en el

그들은 다시 (친구 사이처럼) 말을 놓기 시작했고, 예전(젊은 시절)에 편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또 다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¹⁸⁾

아리사는 전혀 목소리의 흔들림도 없이 즉시 그녀에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동정을 지켜왔소”.¹⁹⁾

고회의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사와 아리사의 사랑은 젊은 시절에 그랬듯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젊은 시절의 사랑으로 연결,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사랑의 과정’을 하나하나 새롭게 밟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위해 동정을 지켜온 것이다. 무수한 여성과 사랑 행각을 경험한 아리사나, 이미 50여년간 결혼생활을 경험한 다사가 동정을 지켜왔다함은 그들의 영혼세계의 순수함을 지칭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행각이나 결혼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완숙하고 완벽한 사랑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했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고회의 나이에 다사와 아리사가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는 함은 라틴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만남,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회복을 상징하고 있다. 나아가 작가는 콜롬비아를 관통하는 천혜의 자연이 고이 간직된 막달레나 강에서 그들의 사랑이 맺어지게 함으로써 왜곡, 변형되지 않은, 민중과 자연이 어우러진 순수한 본연의 콜롬비아(라틴아메리카)를 재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하는 상징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의 새로운 만남(사랑)은 곧 그들의 새로운 탄생, 즉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꿈과 희망이 어린 ‘새로운 세계’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

principio.

18) 앞의 책, 429쪽.

Volvieron a tutearse, volvieron a intercambiar comentarios sobre sus vidas como en las cartas de antes.

19) 앞의 책, 461쪽.

... él le replicó de inmediato sin temblor en la voz: <Es que me he conservado virgen para ti>.

이다. 작가는 이를 위해 많은 서사장치를 텍스트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우선, 60세의 헤레미아가 자살한 것으로 본 소설이 시작되는데 그의 자살 이유는 ‘늙지 않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본 소설은 인생을 60세까지로 규정하고 60세 이후를 ‘늙음’으로, ‘늙음’을 잉여의 삶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늙음 = 죽음’이란 도식으로 본 소설은 시작된다. 그런데 본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고회를 넘긴 ‘늙은이들’이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주인공들뿐만이 아니다. 기름, 오물, 죽은 새와 물고기 등 각종 쓰레기가 부유하며 부패하고 있는 카르타헤나 만(灣), 각종 오물이 범람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구도시, 온갖 만물이 흘러들어와 부패하고 있는 늪지 등도 이미 ‘늙은이들’인 것이다. 여기에 마르케스 소설의 신화적 기법 중의 하나인 순환적 시간을 통한 죽음과 탄생의 의미 창출의 구조가 장치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본 소설에서 서술, 묘사되고 있는 모든 ‘늙음’의 심상은 완벽한 죽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탄생’을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다. 엘리아데가 지적했듯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실체의 사라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⁰⁾

이처럼 죽음의 심상을 곳곳에 장치한 작가는 아리사와 다사의 부활과 신세계의 창출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장치를 마련한다. 그것이 곧 막달레나 강을 따라 유람하는 아리사와 다사의 선상 여행이다.

도시의 광휘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캄캄한 선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 잔잔하고 고요한 강물과, 만월의 휘황찬란한 달빛아래 펼쳐 있는 강 양안의 목초지들이 퍼렇게 빛을 발하는 대평원으로 바뀌어 있었다.²¹⁾

20)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ersity, 1965, 55쪽.

21) Gabriel García Márquez, 1985, 446쪽.

El resplandor de la ciudad había desaparecido en el horizonte. Vistos desde el mirador oscuro, el río liso y callado, y los pastizales de ambas orillas bajo la luna llena, se convirtieron en una llanura fosforescente, ...

아마존 유역의 소나기는 잔여 여정 내내 거의 쉼없이 쏟아졌다. ...
 중략... 숲 여정에서 그랬듯이 그 주(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²²⁾

소설의 배경은 이전까지의 서사 배경이던 카르타헤나를 벗어나, 콜롬비아를 가로지르는 막달레나 강으로 접어든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던 카르타헤나의 광휘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막달레나 강 위에 떠있는 선상을 중심으로 주위의 모든 자연이 해맑은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찬연한 만월의 빛을 받아 환상적인 세계로 전이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인간에 의해 문명이란 이름으로 구축된 거대한 공통인 도시, 수 세기에 걸친 삶의 애환이 덕지덕지 배어있는 도시, 한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물질적 삶의 표상인 도시, 그 카르타헤나란 도시가 멀리 사라지면서 태초의 모습을 고히 간직하고 있는 천연의 대초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신화세계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연의 아마존 유역에 펼쳐진 신화의 세계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억수같은 소나기로 천지창조를 위한 태초의 혼돈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세계로의 전이는 물론 '새로운 탄생'과 '신세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된 사전 장치이다.

이처럼, '새로운 헌신' 호는 화물도 여객도 실지 않는 채 다음날 먼동이 터오자 닻을 올렸다.²³⁾

'새로운 헌신' 호는 선장실 옆에 추가로 넓고 안락한 선실을 하나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거기엔 대나무로 만든 현란한 색채의 가구들로 장식된 웅집실과 완벽하리 만큼 귀엽게 치장된 신혼방이 들어서 있었다.²⁴⁾

22) 앞의 책, 467-468쪽.

... un aguacero amazónico que había de seguir con muy pocas pausas por el resto del viaje. ...중략... llovió tanto aquella semana como en todo el trayecto.

23) 앞의 책, 467쪽.

Así que el Nueva Fidelidad zarpó al amanecer del día siguiente, sin carga ni pasajeros, ...

24) 앞의 책, 443 쪽.

... el Nueva Fidelidad tenía junto al camarote del capitán un camarote suplementario, amplio y confortable: una sala de visitas con muebles de bambú

카리브의 바람이 소란스러운 새소리를 싣고 선창으로 흘러들었다. 그러자 페르미나 다사는 혈액 속에서 불규칙하게 꿈틀대고 있는 자신의 '자유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²⁵⁾

다사가 (아리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살결은 갓난아기 피부 같아요>.²⁶⁾

그것(아리사의 모습)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모습 같았다.²⁷⁾

아리사가 다사와의 여행을 위해서 새롭게 마련한 배의 이름이 '새로운 헌신'이다. 다시 말해 이 배는 그가 아리사에게 고백했던 그의 '영원한 헌신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바치는 사랑과 헌신은 '새롭다'는 것이다. 즉 그가 젊은 시절에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을 이제 다시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그의 사랑과 헌신을 그녀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헌신' 호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다음날 새벽 여명과 함께 출항한다. 그리고 이 배엔 아리사와 다사를 위한 신혼방이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다사의 피 속에서 꿈틀대는 '자유 의지'는 새롭게 용솟음치는 생명력이며 동시에 그동안 사장되었던 자신의 주체 의식, 즉 우르비노와의 결혼으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 소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재생 모티프는 화자에 의한 직접적인 언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회인 아리사의 피부가 갓난아기의 살결로 비유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차 속에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

de colores festivos, un dormitorio matrimonial decorado por completo con motivos chinos, ...

25) 앞의 책, 472쪽.

El viento del Caribe se metió por las ventanas con la bullaranga de los pájaros, y Fermina Daza sintió en la sangre los latidos desordenados de su libre albedrío.

26) 앞의 책, 462쪽.

(Daza) Dijo: <Tienes una piel de nene>.

27) 앞의 책, 416쪽.

Fue como volver a nacer.

의 모습을 재생의 이미지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른편으로는 아스라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막달레나의 강어귀가 이 세계의 저편(또다른 세계)까지 펼쳐져 있었다.²⁸⁾

다사는 장미의 향기가 전보다 더욱 진해졌고, 새벽에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전보다 무척 아름다워졌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오로지 잠든 그녀를 깨우시려고 신께서 해우(海牛)를 만드시어 그것을 광활한 타말라메케 해변에 풀어놓으셨음을 깨달았다.²⁹⁾

재생 모티프는 이제 인물(생물)에 한정되지 않고, 소 세계로 확장되어 천지창조의 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제까지 머물렀던 기존 세계의 끝자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또다른 세계, 즉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신(창조주)에 의해 깊은 잠(죽음)에서 깨어난(탄생한) 페르미나 다사는 자신이 신세계의 광활한 해변에 와 있음을 깨닫고, 또한 신세계의 꽃향기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前 세계에 서보다 더욱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이전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기존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이며, 자기의 존재 또한 과거의 자신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천혜의 자연이 숨쉬고 있는 아마존 유역의 막달레나 강은 이제 신화적 시,공 속에서 신세계로 化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고 있는 다사와 아리사 역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본 작품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의미망은 바로 이 두 축, 즉 페르미나 다사와 플로렌티노 아리사의 새로운 탄생(재생)과 신세계의 도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탄

28) 앞의 책, 472쪽.

A la derecha, turbio y parsimonioso, el estuario del río Grande de la Magdalena se exhibía hasta el otro lado del mundo.

29) 앞의 책, 468쪽.

Descubrió que las rosas olían más que antes, que los pájaros cantaban al amanecer mucho mejor que antes, y que Dios había hecho un manatí y lo había puesto en el playón de Tamalameque sólo para que la despertara.

생과 신세계는 기실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되고 있다.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되는 곳이 곧 신세계이고, 신세계는 곧 새로운 생명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사와 아리사의 사랑을 통한 새로운 탄생과, 새로이 탄생된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신세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사와 아리사의 사랑의 결합은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라틴아메리카 본래의 정체성과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합의 산물인 그들의 재생은 과거 기존세계의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억압되어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적 삶, 다시 말해 갈등과 고통, 방황과 정체성 상실의 일생을 마감하고, 그러한 한평생을 터전으로 삼아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생은 과거세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의 시행착오적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실, 즉 라틴아메리카는 외부인(유럽화된 라틴아메리카의 특권층)이 아닌 라틴아메리카인(라틴아메리카의 민중)과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삶의 실체와 의미를 자각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곳은 수 세기 동안 정체되고 노쇠한, 늙지처럼 부패(腐敗)한 과거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한 노쇠함과 부패(죽음의 세계)를 거쳐서 다시 탄생된 세계 곧 '신세계'인 것이다.

아리사는 창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타원형 모양인 항해용 방위반을, 선명한 수평선을, 구름 한 점 없는 12월의 하늘을, 그리고 항해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넉넉한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곤 입을 열었다.

“앞으로 곧장, 곧장 갑시다, 다시 한 번 La Dorada에 도착할 때까지”.

페르미나 다사는 온몸을 전율했다. 성령(신)의 은총으로 계시를 받은 과거의 바로 그 목소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략)… (신장은) 플로렌티노 아리사의 엄청난 영감(靈感)의 힘에 압도되어 있었다.³⁰⁾

30) 앞의 책, 473쪽.

(Florentino Ariza) miró por las ventanas el círculo completo del cuadrante de la rosa náutica, el horizonte nítido, el cielo de diciembre sin una sola nube, las aguas navegables hasta siempre, y dijo:

이제, 해맑은 하늘아래 펼쳐진 '신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꿈의 도시, 환상의 도시인 La Dorada, 즉 이상향으로 성령은 인도하고 있다. 즉 모세나 예수처럼 성령의 계시를 받은 아리사가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이상향으로 배(라틴아메리카)를 인도하면서 본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를 이끌어가는 것은 선진 세계라는 유럽의 문명을 모방하고자 콜레라의 열병에 들떠있는 엘리트 지배계층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인(민중)과 라틴아메리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즉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진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신께서 라틴아메리카를 찬란한 이상향으로 인도하리라는 계시를 함축하고 있다.

IV. 작가의식

마르케스의 작가의식은 그의 여타 작품에서처럼 본 작품에서도 험벗은 민중의 참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등장한 엘리트 지배계층의 탐욕과 불의, 그리고 그들의 정권욕이 야기한 끊임없는 내란에서 찾고 있다. 온 강토를 황폐화시키고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들 지배계층이 곧 역병 콜레라인 것이다. 또한 유럽식 근대화에 대한 그들의 맹신적인 열망, 즉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가치관 등 전통적 삶의 양태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유럽식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그들의 열화같은 추종 역시 콜레라인 셈이다. 이처럼 마르케스는 참담한 라틴아메리카의 근원을 불의한 지배계층과 그들이 추진한 유럽식 근대화의 입식에 연결시키고 있다.

마르케스는 콜레라의 심상을 부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접목시키고 있다. 젊은 시절 불꽃처럼 타오른 아리사

—Sigamos derecho, derecho, derecho, otra vez hasta La Dorada.

Fermina Daza se estremeció, porque reconoció la antigua voz iluminada por la gracia del Espíritu Santo, …(중략)… (el capitán) estaba anonadado por tremendo poder de inspiración de Florentino Ariza.

와 다사의 순수한 사랑 또한 콜레라의 열병이었고, 선상에서 맺어지는 그들의 육적, 영적 사랑 역시 고열로 인해 혼미한 콜레라 환자의 정신세계처럼, 아마존 유역의 열대기후가 가져다주는 환상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르케스가 이처럼 환상적인 사랑의 세계를 콜레라에 의해 야기되는 혼미한 정신세계 즉 환상성과 접목시키고 있는 것은 환상성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신화적, 종교적, 영적 세계와 서로 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엔,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도시의 물질문명이 아닌 자연과 함께 살아온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정신세계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신문화에서 구하고, 왜곡된 서구의 근대화 열풍에 휩쓸려 상실했던 영적 삶의 회복을 통해서 처참지경에 이른 '라틴아메리카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르케스의 염원이 담겨있다.

각질화된 물질문명의 갑옷에 짓눌려 허덕이는 현대인, 가혹할만큼 빠르게 스치는 시간의 속도에 숨가쁜 현대인, 물질의 풍요만큼 그만큼 더욱 더 황폐해진 영혼을 부둥켜안고 있는 현대인, 심화된 계층의 양극화로 더욱 빈곤에 찌든 라틴아메리카의 민중 등 유럽식 근대화가 야기한 현대인의 삶과 라틴아메리카의 실상을 바라보며 마르케스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했으나 풍요로운 영혼과 여유롭고 정적인 삶을 구가했던 과거 전통문명의 패러다임에 짙은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향수는 비록 무지하고 물질문명의 혜택은 미미했으나 신의 뜻과 하늘의 이치를 따르며 자연과 더불어 정적 삶을 살았던 라틴아메리카의 전통문명에 이르러선 더욱 짙게 발산되고 있다.

V. 맺는말

지금까지 본고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분석을 통해 그곳에 담긴 의미망과 문학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재창조란 명제에 집념을 보이고 있는 마르케스의 작가의식이 어떻게 형상

화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마르케스의 서사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실인식과 역사의식 속에 투영된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시대상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맨 먼저 본 작품의 배경인 카르타헤나의 양극화된 리얼리티를 분석하였다. 카르타헤나 만을 경계로 양분되어 있는 하층민(민중)이 거주하는 구도시 지역과 특권층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의 실상은 모든 면에서 명(明)과 암(暗)으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고, 그리고 본 작품에 형상화된 카르타헤나는 가상의 도시 마콘도의 변형이며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양극화의 주요 동인인 유럽식 근대화 열풍의 허실과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우르비노와 아리사란 남주자인공들의 성격 규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유럽식 근대화의 입식이 근대화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우르비노의 위선적 껍질의 삶이 암시하듯이 '라틴아메리카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부정적 요소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독서, 다양한 여성편력, 민중의 거주지 구도시에서의 삶 등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삶의 애환을 온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아리사는 라틴아메리카의 본질,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진정한 지성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끝으로, 본 작품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랑'의 유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고찰하였다. 여주인공 다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랑의 삼각구도는 라틴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피지배계층(민중),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지배계층(특권층)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모성을 타고난 다사로, 유럽적 삶을 추종, 모방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지배계층을 우르비노로, 그리고 '죽음의 늪지'인 구도시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민중을 아리사로 형상화하여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사랑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다사와 아리사의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은

‘결혼조건’이 월등한 우르비노의 등장으로 좌절되고 결국엔 다사와 우르비노의 결혼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지배계층과 라틴아메리카의 결합을,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상실과 유럽식 근대화의 도입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생활은 풍요로운 물질에 황폐한 영혼으로 요약되고 있다.

노년에 우르비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다사와 아리사의 사랑은 라틴아메리카와 민중의 만남,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회복을 상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운명적 사랑을 통해서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새로운 탄생, 즉 부활을 마련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열악한 삶의 원인을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상실에서, 그리고 그 정체성 상실의 근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란을 일으키고, 유럽식 자본주의의 물질문명을 이식시키려는 탐욕스러운 엘리트 지배계층에서 찾고 있는 마르케스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라틴아메리카의 삶’의 구원을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회복에서, 다시 말해 서구적 근대화 열풍에 매몰된 라틴아메리카의 정신문화, 전통적 가치관, 삶의 양태 등의 회복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찬란한 이상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염원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참고문헌

- 최병일,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장군의 미로” 작품 연구(I),
논문집 제 20편, 경희대학교, 1991.
- , 라틴아메리카 민족의 문화의식과 그 지향성 연구, 서어서문연구 제 11호, 1997.
- Bajtin, Mijail, Teoría y estética de la novela, Taurus, Madrid, 1989.
- Bruno, Giordano, Mundo, magia, memoria, Taurus, Madrid, 1982.
- Brushwood, John S., La novela hispanoamericana del siglo XX,
Trad. de Raymond L.
- William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84.
- Collazos, Oscar, García Márquez: la soledad y la gloria, Plaza y
Janes, Barcelona, 1983.
- Donghi, Tulio Halperin, Historia contemporánea de América
Latina, Circulo de Lectores,
Bogotá, 1981.
- Marco, Joaquín, Cien años de soledad, Espasa-Calpe, Madrid,
1985.
- Márquez, Gabiel García, El amor de los tiempos del cólera, Oveja
Negra, Bogotá, 1985.
- Martín, Carlos, Hispanoamericana: mito y surrealismo, Procultura,
Bogotá, 1984.
- Maturo, Graciela, Claves simbólicas de García Márquez, Fernando
García Cambeiro,
Buenos Aires, 1977.
- Eliade, Mircea,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ersity, 1965, 55쪽.
- , The sacred and the profane, trad. by Willard R.
Trask, Harvest/HBI Book, New York, 1959.

Palencia-Roth, Michael, Gabriel García Márquez, Gredos, Madrid, 1983.

Todorov, Tzvetan, Simbolismo e interpretación, Monte Avila, Caracas, 1992.

Resumen

El amor infinito a la patria: 「El amor en los tiempos del cólera」

Byung-il Choi

Esta tesis pretende revelar un mundo literario de García Márquez a través de análisis del texto narrativo: 「El amor en los tiempos del cólera」, en que se demuestran unos amores categóricos correspondientes de una serie del proceso de choque entre la concepción del valor capitalista de la modernidad europea y la del valor tradicional de la cultura latinoamericana, y también se encuentran unos rasgos míticos y religiosos vinculados en el anhelo del autor de salvar la América Latina por el fomento del advenimiento de Nuevo Mundo Utópico.

En el capítulo II, se sintetiza la realidad hispanoamericana del siglo XIX reflexionada en la conciencia literaria del autor que se ve en sus otros textos narrativos.

En el capítulo III, se analiza, primero, la realidad en el texto, convertida en forma de dos extremos: la ciudad antigua cartagenera en que subsisten los plebeyos de modo miserable y la nueva cartagenera en que viven lujosamente los privilegiados. Cartagena se presenta en el texto como un ejemplar de la ciudad latinoamericana y, a la vez, una ciudad transformada de Macondo. Segundo, se precisan la significación de la demencia a la modernidad de estilo europeo, y el cuerpo substancial de la

identidad auténtica latinoamericana, mediante la determinación de los caracteres de los protagonistas masculinos. Finalmente, se estudia el simbolismo de los amores efectuados de forma triangular entre los protagonistas, es decir, entre la identidad hispanoamericana(Fermina Daza) y la clase alta(Juvenal Urbino), y la identidad hispanoamericana y el pueblo plebeyo(Florentino Ariza). Y, después, se realiza el análisis del mundo mítico y religioso disuelto en la estructura profunda del texto, en que se preparan el renacimiento de los seres, además de los protagonistas, y el nuevo mundo sagrado e intacto para los latinoamericanos.

En el capítulo IV, se efectúa la búsqueda de la conciencia literaria del autor en relación con la multisimbolización del término de cólera.

Key words : 정체성(identidad), 주변문화권(marginalidad), 신화(mito), 특권층(oligarquia), 리얼리티(realidad)